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합니다.

2009년 9월 1일 ~ 10월 31일(2달간)



윤성규 바오로
안동교구 신학생

내가 요셉의원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2008년 담임 신부님 영성강화 때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의원에 대한 영상을 보고서이다.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노숙자, 행려자, 외국인 노동자 등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선우경식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봉사자들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이 그분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새겼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그 영상을 가지고 주일학교, 청년회, 예비자 교리 때 그 안에 존재하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현장실습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환자촌에 이어 이곳으로 실습을 오면 좋겠다는 마음속의 작은 울림이 있었다. 결국 그 울림은 나를 요셉의원원으로 이끌었다. 요셉의원원에서 실습을 하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곳에 오면서 나는 주님께 크게 두 가지의 지향을 부탁드렸다.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그 마음을 닮게 하는 것과 당신 사랑 안에서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실습 내내 이 지향을 가지고 나는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때론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 나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 이 지향은 많은 응답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

요셉의원에 와서의 첫 느낌은 감사와 행복함이다. 과거 나는 악성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을 앓고 척추수술 및 항암 치료에 이어 자가이식을 받았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이지만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한다. 당시로는 말도 안 되지만 병원시절 나는 자원봉사자님들과 신부님, 수녀님들의 삶을 보며 제2의 인생인 사제의 삶을 살고 싶었다. 이 부르심에 때론 두려움에 쌓여 마음에서 밀어내기도 했지만 현재 그 삶을 준비하고 있는 나는 내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행복하다. 요셉의원에는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는 가난한 이들, 이들과 함께 하려는 봉사자 선생님들, 신부님, 수녀님 더구나 작은 경당에 그분의 성체가 모셔져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이러한 행복함 속에서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인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는 문제였다. 이것은 신학교 생활 내내 생겨나는 과제였고 현재 이곳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려 한다.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떠한 일들이 정해지기를 바란다.

특히나 현재 병원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상황에 있고 오랜 봉사 생활로 봉사자들이 내적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처는 다른 이들을 포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말을 많이 하게 한다. 여기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하느님 안에서 더 친해질까? 결국은 어떠한 판단을 하지 말고 최



대한 모든 분들과 함께 해 보자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역시 힘이 되는 것은 기도였다. 기도 안에서 나는 내적인 위로를 많이

받았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분명 행복하다. 기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다.

나를 버리는 작업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부분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자 조금씩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선 폐암 말기 환자 ○○○ 씨다.

이분은 살인죄로 감옥에서 20년간 복역하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가석방 된 사람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가복지병원으로 이송할 때 나는 이분과 동행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다. 기도 지향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이분께 연민 같은 것을 느꼈다. 그분의 말에 귀 기울였고 따로 시간을 내어 그분을 만났다. 이분은 2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분은 울면서 당신 자녀들을 보고 싶어 했다.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며 그분은 울었다. 자녀들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거부했다. 그동안 쌓인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이다. 나는 기도 안에서 늘 그분을 기억했고 개신교 신자인 그분과 함께 주모경을 바치곤 했다. 이분과의 만남으로 환자와의 만남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에 조금씩 함께 하려는 마음이 커졌

다. 내가 얼마나 그분께 힘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반겼고 나는 그분과 함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현재 그분은 심각한 상태이다. 마지막 인간적인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보 5,15) 말씀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분과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요셉의원의 현관 봉사자 사람들이다.

요셉의원의 현관 봉사자들은 과거 노숙자, 알콜 중독자였으며 현재 뇌종양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다.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하며 재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깊어 때론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처음 그들의 성향을 잘 모를 때 나 역시 상처를 받기도 하였지만 이분들을 통해 작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할 수 있었다. 이분들과 친해지려고 주일에 함께 남산타워, 동대문, 종로 등 서울 구경을 하기도 하고 가끔 문자나 전화로 안부도 물으며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었다. 지금은 농담도 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 주말에 영화를 보며 여행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 전 강화도 여행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분들이 먼저 우리 신학생들을 초대 해 주신 것이다. 인간적으로 서로 친해져 그분들이 나를 챙겨 주시고 계신다. 오히려 나는 그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분들이 너무 좋다. 이분들과의 만남에서 느낀 점은 우리 모두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그분의 깊은 내적 기

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분명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작은 관심에서 보다 큰 사랑이 싹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세 번째는 영등포역에서 노숙체험이다.

병원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하지만 실상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더구나 내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하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셨다. 수녀님을 통해 사랑의 집 봉사자 치릴로 형제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쪽방촌과 영등포역에서 일요일마다 노숙자들에게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차 한잔의 위력은 대단했다. 많은 이들이 이 차 한잔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얼굴에 웃음을 띠며 우리를 반겼다. 역시 작은 관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 체험의 가장 큰 의미는 노숙자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내 그들은 자신의 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그리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그들은 고마워했다.

요셉의원 체험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이다. 믿음과 사랑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분과의 만남인 기도가 내 안에 더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큰 결실이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깊이 느끼지 못했던 일상 삶에서 일과 기도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을 했다는 것이다. 신학교 안에서는 기도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공동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니 개인기도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았다. 이 부분이 그리 마음 편하지는 않았다. 때론 미사조차 참석 못할 경우도 있었다. 과거 나는 기도 보다는 일을 더 우선시 한 적도 있고 지극히 극성스러울 정도로 기도를 간구한 적도 있다. 요즘 나에게 그분은 그 무엇을 바



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일상 삶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싶다. 활동 안에서 그분의 향기를 내고 싶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발치에 앉아 고요히 머무는 마리아의 영성에 마르타의 영성을 합치고 싶다. 그러나 어쩔 이것이 또한 유희는 아닐까? 게으름과 나태함, 내 생각만을 추구하는 나의 의지는 아닐까? 악에 들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셉의원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나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고 기도의 지향인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길 수 있었다. 그분들의 삶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그분들이 자신들 안에 존재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받아들여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미약하지만 요셉의원과 봉사자님들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린다. 아멘.

